'부처님 노래' 대중화 길 연다

불교음악硏, 음악감상회 매주 개최

의식 찬불가·교향곡·범패등 다양

가사의미·이론·감상법 공부 기회

불교음악을 이론적 배경이해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음악연구회(회장 정부기)가 11월 말부터 마련하는 불교음악감상회는 법회 현장에서 불려지는 의식찬불가는 물론 교향곡,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 구로 관음포교원 문예회관에서 매주 1회씩 열리게 될 이 감상회는 음악이론에 대한 배움의 마당으로도 활용된다.

불자들이 흔하게 부르는 삼귀의·사홍서원을 비롯한 찬불가의 가사에 대한 의미 해석과 선율의 음악적 특징은 반영규, 정부기, 박이제씨등이 상세히 안내한다. 이같은 이론을 토대로 실제 음악을 감상함으로 불교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주최측의 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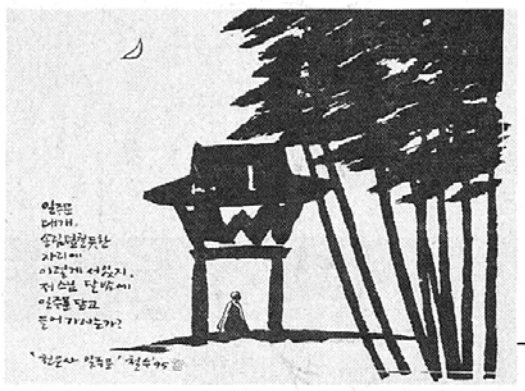
특히 현행 찬불가가 '찬송가를 닮았다'는 지적과 관련 실제 찬송가와의 비교 감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이해하며 새로운 불교음악의 창작 영역도 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일부 기존 찬불가의 편곡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향곡의 감상은 '붓다의 노래'등을 토대로 이뤄지며 이 시간에는 교향악의 전개 방법과 감상법등이 자세히 안내된다. 전통불교음악인 범패의 이해와 바른 감상법은 작곡가 김희경씨가 맡게 되며 전통에 근거한 새로운 불교음악의 창작에 대한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불교가곡의 경우도 가곡이 갖는 특징과 불교적 정서의 융합문제등을 집중 조명하며 기존의 악곡들을 감상하게 된다.

현행 찬불가의 음악적·신앙적 의의와 음악 듣는 자세와 방법을 비롯 불교음악의 당면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이 음악감상회에는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불교음악연구회는 그간 월보 '불교음악'을 통해 현행 찬불가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해 문제점 지적은 물론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해 왔다.

이 감상회도 이같은 맥락에서 불교음악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결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임연태 기자



◇ 이철수작 '천은사 일주문'

생활속 禪의 세계 함축 표현

이철수 판화전 18일~11월 12일, 전국 동시에

판화가 이철수씨의 '마른풀의 노래'전이 오는 18일부터 11월12일까지 서울을 비롯, 전주 대구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3년만에 마련된 이씨의 이번 개인전에서는 불교를 소재로 한 그림과 생활을 소재로 한 그림을 단순하고 선기 넘치게 표현한 판화 72점이 선보인다.

작가 자신이 작품의 화자가 돼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가 찾아다닌 절, 실상사 백장암 천은사 대승사 등 절에 대한 감상을 삶의 한 표정으로 그려낸 '절' 시리즈, 앉아서 열반에 드는 스님을 그린 '좌탈'시리즈가 전시된다.

또 성철스님의 다비장을 소재로 한 작품, 조계종단의 개혁을 소재로 한 작품등도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단면이 그대로 표현된 작품에서부터 깊은 사색의 자취를 드러낸 작품까지 생활의 단상을 함축적으로 그려낸 판화작품이 함께 선보인다.

현실주의 미술, 민중미술에서 출발한 작가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정신세계뿐 아니라 정신세계를 초월하는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선의 세계를 장식물들을 지워버린 단순한 화폭 속에 표현하고 있다.

이철수 '마른풀의 노래'는 대구-기림갤러리·광주-원화랑(~10/25), 부산-조현화랑·원주-카톨릭센타전시장(~10/27), 서울-학고재화랑·제주-제주아트갤러리·천안-이채관화(~10/31),전주-우진문화공간(~11/12)에서 개최된다.

〈필〉

'만다라' 대나무로 표현

황수로씨 설치미술.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부산 출신의 꽃꽂이 작가 '황수로 설치 미술전'이 지난 10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형식으로 미술관 야외 조각장에서 열리고 있다.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서 이씨는 전남 담양에서 구해온 직경 15 길이의 대나무와 대나무 바구니로 꾸민 '만다라'와 '세월, 그리고 도전''홍살문'등 10점의 설치미술작을 출품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는 이번 전시는 공공미술관 최고 권위의 국립미술관에 지역작가로는 드물게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찬불가 교실 마련

본사 부산지사 강당

찬불가를 쉽게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16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3시30분 범일동 현대불교신문 강당에서 찬불가 교실을 연다. 배천종씨가 지도하며 누구나 동참, 무료로 배울수 있다.

강진 보련사 여래좌상등 17건

전남·충남서 문화재로 지정

전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유형문화재 2건과 무형문화재 1건, 지방기념물 5건, 문화재자료 1건 등 모두 9건을 새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중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재는 강진 옥련사 목조여래좌상과 강진 귀곡사 소장 익재이제현상(像) 및 백사 이항복상 등 2건이다. 특히 보련사 목조여래좌상은 1684년 조선 숙종 10년에 제작한 것으로 제작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어 당시 불상양식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유물로 주목된다.

한편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예산 보덕사 극락전, 부여 보광사지 등 8개 문화재를 도문화재로 지정했다. 보덕사는 고종 2년(1871)에 흥선대원군이 옛절인 가야사를 승계하는 의미로 지은 사찰이며, 보광사지는 고려시대의 절터이다.

괘불 탱화 2백여점 수록

서울시 '사찰 불화집' 발간

서울시 문화관광국은 이달말까지 서울시내 13개 사찰의 괘불탱화의 촬영을 완료하는등, 연말까지 서울시내 사찰의 탱화 2백여점을 수록하는 도록 〈서울전통사찰불화집〉을 발간한다.

문화재관리의 효율성과 학술연구자료 이용의 편이를 위해 3년전부터 이 작업을 준비해온 서울시는 도록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불화도 공개할 예정이다.

분신통해 '구도' 조명

연극, 끽다거 만해의 갈등그려

만해스님의 서거 51주기이자, 광복 50주년을 맞아 극단 서전이 선보인 연극 '끽다거(喫茶去)'가 지난13일 공연을 끝으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막을 내렸다.

제19회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이었던 연극 '끽다거'는 최현묵 작, 박계백 연출로 극단 서전의 열세번째 작품.

만해스님의 생을 빌려 생사일여(生死一如)의 삶과 죽음의 문제 등 한용운의 생애와 인간적 면모를 밀도있게 담아냈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자신의 장 *
내가 저지른
죄악은
바로 내게서
일어난 것



이 향 원



축 창간1주년

사단법인 한국불교발전연구원

"한국불교의 올곧은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 사 장 유 월 탄
원 장 김 용 정
실 장 홍 윤 식
상임연구위원 김 묘 주

상임이사 김 현 해
이 사 이 혜 총
이 사 이 성 웅
이 사 박 진 영
감 사 최 지 원
감 사 윤 법 안

기획조정실장 김 동 성
사 무 처 장 박 현 광
사 무 국 장 최 선 종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38 내자원B/D 6층 / ☎ 736-6202

축 창간1주년

駕洛佛教長遊宗 禪宗 開院 大法會 및 奉佛 點眼式 招請

귀의삼보하옵고,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편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소매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 사람들은 몇 생을 만나, 서로서로 탁마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가락사의 일부인 가락불교를 복원하기 위하여 영남의 제일명산, 신선이 기유한 성지, 중무산 중원에 서기 1994년 3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대웅전, 장유선사영정각, 장엄보전, 공양청 등 건물네동을 준공하고, 상기와 같이 본 선원 **開院 大法會 및 奉佛 點眼式**을 봉행코저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두루 참석하시어 무한한 공덕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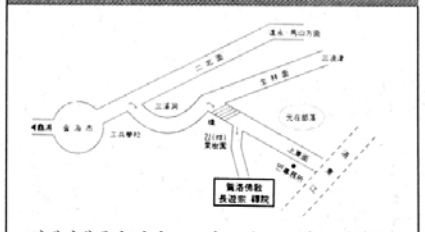
記

■ 일시 : 서기 1995년 10월 27일(금요일)
• 奉佛點眼式 : 오전 10시 • 開院大法會 : 오전 11시

■ 장소 : 경남 김해군 상동면 석계리 1050-1번지(광재부락)
駕洛佛教長遊宗 禪院(약도 참조)

1995년 10월 일

駕洛佛教長遊宗 禪院 위치 약도



● 김해시내에서 차편으로 약 20분 소요되는 지점임

駕洛佛教長遊宗 禪院 創建佛事推進委員會
위원장 金 容 彩
주 지 金 玄 徹 합장

* (연결전화) 김해 선원
TEL : (0525) 23-6174~5
부산사무소
TEL : (051) 635-4111~4